

누가 농업을 육체노동, 1차 산업이라 했는가!(II)

현재 세계적으로 식품환경은 엄청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뛰어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방식인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차 산업인 쌀 한 가마니의 부가가치를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농업을 뜻하는 애그리컬처(Agriculture)의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화 농업, 선진화된 글로벌 농업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샘터사에서 펴낸 “글로벌 스탠더드” CEO 6인의 조언 중 (주)하림 김홍국 회장의 선진화된 글로벌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지난해에 이어 ...

찾아라, 농업 속에 금은보화가 숨어있다

우리는 주변에 축복받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이 가까이 있고 넓고 넓은 미래의 시장 중국을 지척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 좋은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먹거리 시장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조금만 눈을 돌리고 시야를 확장하자. 농업의 장래는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식량자급은 쌀 자급이 아니다.

농업 무역의 흑자를 이루는게 바로 자급을 달성하는 것이다. 농림축산물 무역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 농업 관련 산업 자체가 덩달아 위축되고 만다.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농업의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규제를 신속하게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 농업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관련 산업을 각종 규제로 꽂꽂 묶어 놓고 있다. 현재의 규제를 보노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 다음은 통합경영



으로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경영구조를 바꾸고 규제를 완화하면 많은 품목에서 현재보다 20~30%의 원가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경영 기법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것만이 경영의 전부는 아니다. 농업도 경영이다.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원가를 3% 줄이는 것보다 농업환경에서 30% 줄이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다. 월등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1.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을 직업의 우선순위에 둔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길에서 구두 닦는 것을 낮고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구두 닦는 사람들이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벌고 있다.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내가 직업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사회적 고정관념에 너무 얽매어 있다. 옛날에는 도시로 나가지 않고 시골에 눌러앉아 닭을 키우겠다고 하면 한심한 자식으로 취급받기 십상이었다. 농사는 힘만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런 인식이 일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취업이 안된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오픈 마인드로 주변을 돌아보라. 눈을 돌려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수없이 많다.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자기 앞날을 개척해 나가자. 꿈을 꾸다는 것

은 이룰 수 없는 높은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위를 보는 것이다.

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점차 높이를 상승시켜야 한다. 필자 역시 병아리를 키우다가 닭을 키우고 닭을 키우다가 돼지를 길렀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경영이 보이고 오늘날 하림을 이룰 수 있었다. 모든 꿈은 한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영은 아트다. 농업경영은 더욱 그렇다. 천명에게 똑같은 자본과 기술, 인력자원을 제공해주고 경영을 시켰을 때 그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온다. 피카소의 제자에게 피카소가 사용했던 그림 도구를 주고 지도를 한 다음 그림을 그리게 하여도 그 결과는 피카소 그림과 다른 엉뚱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발견 즉시 해결하는 것, 이것이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경영'이다.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삶과 직결된 생명공학이다. 생명공학의 주된 원자재는 동물, 식물, 미생물이다. 다시 말해 농업이다. 옥수수를 예로 들어보자. 처음 우리는 옥수수로 식량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옥수수 기름으로 무공해 자동차 연료를 만든다. 이때 옥수수는 농업이 아니라 화학이요, 과학이다. 옥수수로 약품을 만들면 의학이 된다.

2. 농업은 아트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다

가공식품은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 훨씬 위생적이다. 앞으로 주방의 면적은 점점 줄어들고 대신

식품회사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식품의 주된 원료가 농산물이다. 농업은 미래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며, 농업과 관련한 직업은 미래의 가장 가치있는 직업이 될 것이다.

하림은 철저히 설비 집약적인 사고로 무장되어 있다. 또한 하림은 기업가적인 사고를 한다. 병아리 한 마리를 부화시키고 키워서 고기를 생산하고 제품을 만들기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설비가 처리한다.

하림은 단순히 닭고기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벗어나 전문 농식품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회사로서 농장, 공장, 시장을 하나로 묶는 통합경영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신선육 및 육가공품 생산으로 우리나라 닭고기 시장의 확대를 기하고 있으며, 셀레늄 닭고기 생산을 비롯하여 바이오 식품 분야와 닭쓸개를 이용한 신약개발 등 생명공학 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는 가슴으로, 감상적으로 사고하길 좋아한다. 하지만 감상적으로 사고해야 할 상황과 냉철한 머리로 사고해야 할 상황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비즈니스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머리로 사고해야 한다. 하림은 철저히 머리로 생각한다. 농업도 글로벌이다. 21세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이성적인 사고로의 전환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다.

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인생이 재밌다. 의사, 변호사 등 사회적 지위를 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다. 지위를 얻으려고 일을 택했으니 그 일에 신명이 붙겠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조차 즐겁다. 자신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성취감도 크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은 고스란히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품질향상으로 이어진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가공식품의 점유비율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농업은 사양길이 아니라 미래의 최첨단 산업이다. 농업 속에 금은보화가 숨어 있는데 우리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부터라도 농업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개인은 물론 이거니와 농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근본적인 정책이 바뀔 때 농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다.

“농업은 아트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다.” C

Tip.

김홍국 회장이 강조하는 글로벌 농업경영 전략 8가지

- 생산은 농업의 일부분일 뿐이다. 부가가치를 생각하라
- 보여주고 과시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하라!
- 시장을 세계로 인식하라
- 가슴이 아닌 머리로 사고하라
- 설비 집약적 통합경영을 실행하라!
-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지 말라!
- 소비자의 기호와 입맛을 앞서가라!
- 소비자 식문화의 변화를 감지하라!

■ 지은이 : 아주대, ■ 펴낸이 : 김성구, ■ 펴낸곳 : (주)샘터사